

<성명서>

“NAP와 차별금지법, 순교적 각오로 거부·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인권은 내세우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은 억압 침해하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힘을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건전한 성윤리와 가치를 정부가 나서서 송두리 채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

름없으며,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문란한 성행위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에 대해 일체 거부한다. 이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가 성소수자들이 세운 나라인가. 우리는 정부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는 것과 옹호하는 것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

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계현 목사, 최기학 목사, 전영구 목사, 이영훈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종현 목사

휴가철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서울남부구치소 직원들의 “사랑의 헌혈”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8.7.(화) 학생들의 하계방학과 휴가철로 인하여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남부교도소까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헌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이동 헌혈버스에서 실시하였으며, 부족한 혈액 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시되었다.

이날 헌혈 행사를 참석한 한 직원은 “그 무엇보다도 대체 할 수 없는 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다른 생명을 구하는데 꼭 도움이 되고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작은 실천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지속적인 헌혈행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란 단어를 잊어버린 대한민국

1970-80년대에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부르고 외치던 노래가 있다. 이 노래보다 더 유명한 것은 없을 것이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러주던 박정희 작사 작곡의 노래인 ‘새마을 노래’이다.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보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 기구에서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서로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바로 새로운 세상 나에게는 희망이 있고 나도 잘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불러넣어 준 노래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노래지만 이보다 어느 노래가 국민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러넣어준 노래가 있을까? 어느 대통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위하여 노래를 만들었는가?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별의별 짓 다한 대통령들이 아닌가? 그들은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상은 흐르고 세상은 변화하고 잘사는 인간들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더 비참한 꼴로 떨어지고 헤어 나오지도 못하는 세상이 오늘의 한국이다. 국민들은 배고프고, 국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국민들은 거지로 쫓겨나고, 여행이나 관광은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먹고사는 것에 쪼들려 생각조차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 가족과 뿔뿔이 헤어져서 가장은 홀리스가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비전 없는 세상, 꿈이 없는 세상,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죽을 수 없어 목숨이 붙어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세상은 타락하고,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기적인 삶으로 마음이 썩어가고 자라나 친구라고도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해가되며, 고통을 안겨주는 세상이라고 어려서부터 괴로움을 안고 살다가 지쳐 극기가 지상에 이르고, 젊은이들은 비전이 없어 모든 인생 자포자기하고, 세상살이 썩어가고 고통하며 신음하고 대화가 주변은 공부를 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져 놓고먹고 마시고 생장이 여관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욕과 정신과 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산목숨 거미줄이라도 치려고 몸을 팔기도하고, 이러한 상황에 어디 한국 국민들에게는 4차원 산업혁명이 해당될 수 있을까?

배부른 것들, 정치하는 것들은 휴식하며,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 끼를 연명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과 국민들의 밑바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 역시 지들만 알고 내보이기위한 행사에 치중하고 종교지도자들의 타락의 말로의 모습 이 고스란히 사회와 국민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지만 종교지도자들과 종교단체들 어느 누구도 입바른 소리 한마디 못하는 한심스럽고 썩어빠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가 싶다.

아무리 선진국대열에 올라간 나라라고 하지만 오히려 새마을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당시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희망과 꿈이 없는 세상이 아닌가. 정치하는 것들은 지들의 명예와 다음대선을 위하여 살아간다지만 그 밑에 붙어먹는 것들은 목숨줄 끊어지지 않으려고 별의별 아무와 용쓰는 모습이 참으로 불쌍한 이세대가 아닌가 싶다.

한술 더 떠 지금의 주사와 정권과 정치가들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 김정은 더 중요하고 정은이의 말 한마디가 한국정권을 뒤흔들고 버리기도 하는 세대이다. 김정은은 탈북한 종업원들은 보내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고 협박한다. 자기들을 돕는 것이 왜 이리 진척이 없냐고 협박한다. 아마 현 정권과 정치하는 것들은 종업원들을 타국을 통하여 은밀하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야 자들은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서해에 있는 위성발사 장치를 해체한다고 미국이나 한국이 좋아한다. 솔직히 웃기는 쇼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들에게는 다른 곳에 또 있을 텐데,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숨겨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다. 그까지 쓰레기 고물 해체한다고 대수인가. 북한에 있는 핵들과 모든 시설을 폐기하는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미국보다 한국이 비용을 대야 할 것이다. 모든 철도망 연결, 항구연결, 북한에 지원하는 모든 물자들과 돈과 기술과 기술자 등 말이다.

그러나 문제인이 기업들의 부정을 찾아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인이 운영되는 북한 계획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은 망하게 되어 있다. 그 기업에 딸린 소규

이동규 목사
영국한인교회



로 기업과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니 문제인의 북한에 대한 것에 지원하지 않으면 줄줄이 도산할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지원되고 마는 더럽고 추잡한 정권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어떤 정권보다도 더 사악하고 악랄한 정권이 문제인 정권이다.

박원순이는 육랍방에 한 달간 시헛 삼아 산다고 이사했다. 한마디로 더러운 놈의 똥쓰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본다고 평생 육랍방에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원순이가 자기 자신은 소셜디자이너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아주 더럽고 추잡한 자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동정심을 얻고, 쇼맨십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북한식 사회주의의 보여주기식 선전선동이 아닌가. 그가 몸을 파는 어느 아가씨를 팔로우 해서 거가예다가도 글을 올린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글들을... 그래서 말했다. “당신의 자식들이 게이퍼레이드에 참석해서 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된길을 간다면 고쳐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대답해 보라” 하였다.

SNS를 보라 얼마나 많은 여학생들과 아가씨들이 몸을 팔고 있나? 해결책을 마련하라. 성매매자들의 직업을 합법화하면 그들이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든지, 불법을 자행하는 모든 출장맛자집에 철퇴를 가하면 된다. 대부분의 사기꾼 맛자집 주인은 중국풍포가 한다고 한다. 중국어가 온라인의 메인을 놓고 잡히더라도 못 찾게 만들어놓고 사기치고 등한다고 한다.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는 자들이 그늘에 가려진 자들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까? 새나라를 꿈꾸며 새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마음에 희망을 품고 나도 열심히 하면 돈도 벌고 잘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결혼도하고 자식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꿈을 줘야 하는 것이 정치하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 가닥의 희망마저 빼앗아 버리는 오늘의 이 더러운 정권이 사라지고, 국민들에게 새희망 새소망 새꿈 새미음 새로운 미래를 불러넣어 주고 부른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나라 새정치 새사람들이 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제73주년 광복기념예배 및 전 여성부장관 특강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상임회장
신한철 목사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



총무
곽영민 목사



여성위원장
목영자 목사



전 여성부장관
변도윤 전 장관

-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협의회 비전센터
- 오시는 길 : 5호선 까치산역 4번 출구 좌측 30m 필병원 앞 호용빌딩 6층

제73회 광복절 감사 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 또 2부에서는 여성위원회(위원장 목영자 목사)주간, 변도윤 전 여성부장관님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특강을 듣고자 하오니 모든 회원들께서는 적극 참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077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길 25, 6층 ☎ 02)2608-2190, Fax 02)2608-2191

공고(公告)

그 자에(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에서 법적으로 징계된 자들이 주축이 되어 본 협의회 명칭과 아주 유사하게(총자하나만 더 붙인)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라 단체를 만들어 놓고 협의회와 분리한 단체라고 고하며 언론에다 본(사)한기보협 연혁(역사) 불법으로 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불법이며 연혁과 역사의 도용이므로 향후 그들이 같은 일을 반복 한다면 현실 정법에 저촉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 본(사)한기보협에서는 그 일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표회장 한 홍 교 목사

한양대 맹주성 교수,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군에게!

2017년 7월경에 자네에게 충고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네. 수없이 많은 옥살이를 들었지만 그보다 몇십 배 더 많은 격려와 응원의 답글이 있었네. 많은 걱정 속에서 1년 동안 자네의 행보를 지켜 보았네. 물론 그 다음 날 자네가 글을 읽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말 없이 관찰하기만 했던 것이기도 하네. 그러나 이제 다시 말을 할 때가 되었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뭐 하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없네.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땅 덩어리가 지구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 내가 미친 것인가?

논란 뜨면 벌어지는 이해를 해줄 수도 없고 이해를 해서도 안 되는 새로운 일들로 나의 머리 속은 마치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있는 듯 어지럽다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현 정권들여 그동안 유지해온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막무가내로 뒤집으려고 하는 자네들의 일탈적 통치 방식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이고 파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 1. 자유시장경제 2. 자유민주정치 3. 실질적 법치 이 3대 요소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천만의 논의 대상도 아니었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3대 요소 모두가 무너진 상황 아닌가? 첫째, 시장경제가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인가? 도대체 “소득주도성



장”이라는 정책 또는 이론의 정책이 무엇이던 말인가? 글로벌 경기 상승기에 우리의 경제 지표는 끝없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더욱이 글로벌 경제도 어떤 주기를 가지고 부침하지 않는가? 언제 또 다시 이런 상승기가 올지 예측이나 해보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기회를 걸어서 버리고 있는 것이네. 국가의 경제가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는 이론의 실험 대상인가? 국가 탕진하고 빚 늘려 가면서 돈 뿌리는 정치, 누구인들 못하겠나?

둘째, 현재 우리가 자유민주정치 체제에 있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네는 아니라고 답하겠지. 지난번 제10차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려고 하지 않았나? 현행 헌법과 개헌안 전문을 비교 검토해 보았는데 현행 헌법 60여 군데가 개정되는 것이었더군. 이것이 “개헌”인가 “제헌”인가? 도대체 비서실장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회의 주재하고 장관을 질타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 할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정치

를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서 알 수 없는 사항이니 알려주기 바라네. 내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정치 운운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청와대의 말 한마디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내각이 왜 필요한가? 원자력 발전소 문제만 해도 말 한마디로 일어난 망국적 사건 아닌가? 군 무장해제 등 안보 문제도 그렇고, 국방장관이 필요하기는 한가? 1980년대 중반까지 운동권 학생들의 구호가 뭐였나? 독재, 파쇼정권 타도였지. 그 당시에는 눈부신 경제 성장이었네. 그런데 현 정권은 무엇인가? 경제는 경제대로 망해가고 있네. 정치는 독재 그 이상이라 생각하지 않나? 당시 자네를 운동권의 주장이 정당했다면 지금 정권은 더욱 타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셋째, 법치주의, 이 부분은 어떤 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네. 어쩔 수 없이 전 정권에서 그리고 현 정권에서 일어난 같은 맥락의 진행형 사건을 한 가지만 비교해 보겠네.

1. 여론조작사건 현재 특검중인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 이 사건은 정치와 민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조직적 조작을 수행한 참으로 용서 받지 못할 사건이지. 여론조작이라는 같은 관점에서

전 정권에게 대선 당시 야당은 무슨 주장을 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가? 지금도 마땅히 똑같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검의 공은 없는 것 아닌가? 이 와중에 사건 관련 국회의원의 자살은 또 무엇인가?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노인 어머니를 두고 자살이라니 이해할 수 있겠나? 죄악일세.

나는 현재 우리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음을 가장 비통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탄핵은 형사소송인데 이 경우 “완벽한 증거”에 의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도주” 등의 이유로 들어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나?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조작된 테블릿PC를 포함해 1년 넘도록 차고 남긴다면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죄가 없다는 것이지. 억지 탄핵에 현 정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당하고 뱀뱀하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이 시점에서 1987년으로 돌아가야 되겠군. 당시 운동권에서 외치던 구호 말일세. “민주화 원년”이라는 것이었지. 원년이라 함은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원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되었지. 현행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10차 개헌안이 “제헌”수준이었고 목표점은 김일성이 주장했던 “연방제”라는 것.

이미 30년전 그 이전부터 기획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 단어 아닌가? 누구에 의한 기획이었나? 누구의 지시였던 말인가? “누가” 존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국대학운동권이 일제히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겠나? 헌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무너졌고, 국가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있단 말일세. 민족, 자주, 평화라는 수사학적인 단어들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말게.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겠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평화냐? 하는 것이란 말일세.

맑스가 평화스런 사회를 만들었나? 스탈린, 마오쩌둥이 평화스런 사회를 이룩했나? 김일성 3대 세습이 평화스런 사회를 만들었나? 오히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였던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던 말인가? 아무리 바빠도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어보게. 공산



1년만에 다시 편지쓴 임종석 은사 맹주성 교수

주의가 어떤 것인지. 김정은가 무력, 이념의 불균형 상태에서 헌정권이 추구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나? 뭐 그리 비밀이 많은가?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38선을 넘어가서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하고, 북으로부터 몰래 고가로 석탄 수입하는 등 많은 사안들이 깨리깨리만 알고 진행되고 있으니, 분명히 보안법 위반, 국제사회로부터의 일탈 입에도 불구하고 통치 행위라고?

통치도 법대부터 안에서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사안의 내막이 노출되면 전 정권에 책임 전가나 하고, 비법하다고 생각지 않나? 북에서 정적으로 저 화들이 잘못하고 우리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유치하고도 뻔뻔스럽다는 감점과 유사한 논리를 준다는 말일세. 나는 현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이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뒤집기 위한 수순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네. 하루라도 빨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하기를 바라네. 어쩌면 “자유”라는 이 두 글자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명령일지도 모르겠네. 태극기를 든 모든 사람의 명령일 것이네. “극우”라고? 이런 틀로 물고가지 말기바라네. 또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공수 부리지 말란 말일세. 모두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도 불사하는 자연 발생적 무한 에너지일세. 저의를 향해 흐르는 도도한 물결이란 말일세. 이 물결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것이네. 이글을 읽고 또 저급한 욕지거리나 해대는 그런 수준의 젊은이들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네. 사실에 토대를 둔 논리로 본인의 주장을 어필하는 그런 성숙된 사회가 되기를 바라네. 그런 반론을 기다리네.

맹주성 교수의 글을 계기로 더 많은 지식인들이 더 많은 사회 각계 전문가 집단들이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맹주성 교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출처 데일리베스트 news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장기 12행동 등록번호 : 서울다-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 조진목 사장: 허정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장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왕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ltpress@hanmail.net / jltvcpj@naver.com
▶전화 : 전화: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미국, 北석탄 추적... 떨고있는 韓電

자회사 남동발전, 용의선상에

美 '북한산 알고도 반입' 판단땐 제재 위반으로 거래 막힐 수도

북한산(産)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와 별개로 제재 위반 '용의 선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기업들은 국제사회에서 신용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대북 제재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5일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미국이 석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은 한국전력공사다.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작년 11월과 올 3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700t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한전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외부 자문을 했다. 결과는 ‘미국 제재 시스템상 남동발전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한전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대 공기업이 용의 선상에 오르면 국가 신인도 및 경제 전반에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전

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취할 제재 조치의 종류와 파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과 남동발전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 “러시아산으로 확인하고 석탄을 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동발전과 함께 북한산 석탄 수입에 연루된 국내 기업 한 곳과 은행 두 곳도 미국의 제재 조사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의혹 수준을 넘어 실제 제재 위반으로 판명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국제 거래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제3국 기업의 달러 거래를 막는 ‘체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면 사실상 국제 금융거래에서 배제된다.

최근 중국 통신 장비 업체 ZTE는 북한·이란 거래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 회사문을 닫기 직전까지 갔었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워싱턴에 간 것은 이런 사태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수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수도권지역 경기·여주 주택 · 대지 특별분양

전원주택단지 대지 주택 특별분양 이미 관심 속에 매매되고 있는 여주전원주택 은행대출 분양가의 70% 여주상수도개설, 전기, 통신(인터넷, 유선방송)지중화



대지특별분양(70,680,000원)

(임야 33㎡당 40만원, 약6600㎡ 매매량)
현재 또는 2-3년 후에 건축가능 환경
대지(330㎡+도로 46㎡) 합계 376㎡
3.3㎡당(62만원)376㎡=합계 70,680,000원



목조주택 특별분양

(2층 99㎡, 1억8500만원/평3, 화장실2, 거실, 다용도실)
(1층 72.6㎡, 1억5500만원/평2, 화장실1, 거실, 다용도실)
주택 99㎡(1층 72.6㎡, 2층 26.4㎡)
대지 333㎡, 도로 46㎡ 합계 379㎡

교통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56.95KM)
- 대신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3분소요)
- 강남분당에서 대신IC까지 45분소요)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소요)
- ◆ 여주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57km)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12분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20분
- (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소요

주소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초현리산 48번지)

전원주택홍보전화

010-5468-6574
010-3478-6574
http://cp.kr
http://jltv.kr에서
팝업창 광고 진행 중

분양
문의

02)8 5 4 - 1 3 5 5

한기연 광복 73주년 메시지

‘한국교회가 민족의 등불’ 구원의 방주되어야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 주주의 사슬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 나라는 36년간 우리 민족에 드리웠던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우리 민족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암흑기에 등불 역할을 하며 독립, 자주, 국군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에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은 목숨까지 아낌없이 던져가며 불의에 항거한 순교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때때로 선지자적 사명을 망각하고 집단주의에 매몰되어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거룩한 순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며, 세계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룬 오늘날 한국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통렬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뼈저린 자성의 고백이요, 회개와 상생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광복의 진정



이동석 목사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한 의미를 완성해나가겠다는 결단의 선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교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고 난무하는 조롱과 불신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8.15 73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모두는 시대적 도전과 시련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 침략 역사를 왜곡 미화하고, 독도 영유권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패권주의의 부활을 기도하고 있으며, 미중 강대국 간의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

장관계를 해소하고 북핵 폐기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평화 통일의 대로를 나아가기까지는 아직도 숏한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평화와 번영의 자랑스런 조국으로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세대를 아우르는 조화와 타협으로 이 땅에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자만에서 벗어나 거듭된 분열을 깊이 회개하고 일치와 연합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룸으로써 시대 앞에 선지자적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이대로 종사오나” 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스스로 갇힌채 못한다면 종래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부어하신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8. 8. 3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세기총, 73주년 광복절 메시지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광복절은 정말 뜻 깊은 날이다. 36년을 나라를 빼앗기고 좌절과 도탄에 빠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빛을 발한 날이기도 하다.

그 동안 수많은 선조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암재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 날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분들이 이 날을 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서러운 정

도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또 다시 6.25전쟁이 발발하고 끝내는 남과 북이 분단되는 새로운 비극을 맞이했다.

그렇지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한다.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남과 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남과 북이 서로의



정서영 목사
세기총 대표회장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고 통일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를 쌓아가면서 노력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것 같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때 마음을 합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생각된다.

특히 8.15 광복절 73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국내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되기를 바라며,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회가 교회답고, 목회자가 목회자 다룰 때 한국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이며, 목회자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일 때 작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한국교회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세속적 성향이 아닌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등불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의 모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2018년 8월 9일

사단법인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대신대학원 2018학년도 명예박사 학위수여 감사예배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서재주 박사)는 지난 7월 23일(월) 오전 11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 본교 1층 체플실에서 2018년도 명예박사 학위수여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박재봉 교목실장의 인도로 총장 서재주 박사와 교수 등이 입장하여 개회사가 진행되고 노재명 교수(구약신학)가 기도문을, 서요한 교수(실천신학)가 성경봉독(히 12:1-13)하고, 총장 서재주 박사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이학재 교수(구약신학)가 학위취득자들의 소개가 있는 후 총장 서재주 박사의 학위수여가 진행되었으며, 강민



철 행정본부장의 광고에 이어 서재주 총장의 축사로 마쳤다.

이날 송배희 박사(신약), 유명순 박사(신약), 오장현 박사(글로벌사회복지경영) 등이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손웅재 박사(신학)는 명예목회신학박사

(D.Min)를 취득했다. 특히 손웅재 박사는 본 교단 중부노회 소속으로써 노회원들의 축하를 받는 동시에 송배희 박사, 유명순 박사, 오장현 박사 등도 가족 친지들의 축하와 가족사진 촬영으로 화기에 애한 자리가 되었다.

신나는교회, 삼계탕 나눔으로 ‘훈훈’

박근성 교회기자(신나는교회)

신나는교회 동탄체플은 17일 동탄4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삼계탕을 대접했다. 신나는교회(담임 이정기 목사) 동탄체플은 지난 7월 17일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동탄4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우 및 인근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삼계탕을 대접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무더운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인 삼계탕을 대접함으로써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도 삼계탕을 나르며, 일손을 보았다.

영천동에 위치한 동탄 4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과 장애우 가정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세워진 복지관이다.

동탄체플 사회복지팀은 복지관 봉사팀, 사랑의 도시락팀, 이미음 봉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섬기고 있다. 복지관 봉사팀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초복을 맞아 삼계탕을 만들어 대접하고, 담소도 나누고 있



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찾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날 참석한 한 어르신은 “삼계탕을 대접해주니 너무 고맙다”며 환한 웃음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도 섬김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

http://www.mokpojuan.com

담임목사 모상련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1회 오전 8:00
3회 오전 11:30
주일밤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30 (겨울 7:00)
새벽예배 오전 5:00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본교회: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EL. 061-272-4908, FAX: 061-276-1006
남약예배당: 목포시 남약2로 52번길 남약크리치A동 301 TEL. 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대한예수교장회(에녹)총회 제5회 정기총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5:24)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

종교 혼합주의 반대

종교 다원주의 반대

여성목사 안수 허용

동성애 반대

목사 무정년제

에녹부흥신학생 모집

본교단은 (사)한국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에 가입된 건전한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장로교단입니다.

설립자/총회장 광영민 목사

등불교회 담임

교단가입 환영

유튜브: 에녹부흥, 카카오톡채널: 에녹총회

일시: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등불교회(광영민 목사 사택)

문의: 010-6778-0651

■ 靑松 건강칼럼 (651) 복달임 음식

민어탕(民魚湯)

‘덥다 더워!’ 폭폭 찌는 폭염(暴炎, 불볕더위)이 계속되고 있다.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가 초복·중복·말복의 삼복(三伏)이며, 올해 초복(初伏, 7월 17일)과 중복(中伏, 7월 27일)은 지났고, 말복(末伏)이 오는 8월 16일이다.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 있는 삼복은 24절기(節氣)에는 속하지 않는다.

초복은 하지(夏至, 금년은 6월 21일)로부터 세 번째 경일(庚日·十天干이 庚으로 된 날), 중복은 하지로부터 네 번째 경일, 그리고 말복은 입추(立秋, 올해는 8월 7일)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다. 복날은 10일 단위로 오기 때문에 초복과 말복까지 20일이 거리지만, 해에 따라서 월복(越伏)인 경우 중복과 말복 간격이 20일이 되기도 한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보양식(保養食)을 먹거나 시원한 물가를 찾아 더위를 이겨내는 일을 ‘복달임’ 또는 ‘복놀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복날에 더위를 이겨내라는 뜻에서 고관대작(高官大爵)들에게 쇠고기와 얼음을 하사했다. 냉장고(冷藏庫)가 없던 옛날, 우리 조상은 삼국시대부터 얼음을 보관하는 석빙고(石氷庫)를 만들어 겨울철에 언 얼음을 보관했다가 무더운 여름에 꺼내 사용했다. 조선시대에는 수도인 한양에 동빙고(東氷庫)와 서빙고(西氷庫)가 있어 동빙고에 있는 얼음을 왕실에서 제사 음식을 신선하게 올리는 데 사용했고, 서빙고의 얼음은 왕실과 고위관료들이 썼다.

옛 사람들은 ‘부채’ 바람으로 더위를 이겨냈다. 전기를 이용하는 선풍기(扇風機, electric fan)는 190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외국제품을 모방한 선풍기를 제작한 후 국산화에 성공했다. 에어컨(air conditioner, 空氣淨化器)은 1902년 미국의 한 제철소에서 일하던 윌리스 캐리어(Willis Carrier, 1876-1950)가 발명했으며, 그는 에어컨 제조회사 ‘캐리어’를 창업했다.

캐리어는 뜨거운 증기를 채운 파이프 사이로 공기를 통과시키는 기존의 난방시스템의 원리를 뒤집어 냉매(冷媒) 사이로 공기를 통과시켜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에어컨을 발명했다. 1920년대부터 에어컨이 보급되면서 인류의 생활권은 빠르게 확장됐다.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싱가포르(Singapore)의 국부(國父) 리관유(李光耀, 1923-2015) 총리는 “에어컨이 없었다면 싱가포르는 없었을 것”이라며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1975년 금성사(현재 LG전자)가 참문형 에어컨을 생산하였다.

1950년대 필자의 학창시절 大邱 우리 집에는 선풍기(日機)가 한 대 있어 온 식구가 마루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다가 선풍기의 모터 부위가 뜨거워지면 찬물수건을 선풍기에 올려놓곤 했던 것이 기억난다. 에어컨은 1960년부터 파인트리클럽(Pine Tree Club) 회의를 매주 토요일 오후 미국공보원(USIS)의 에어컨으로 냉방이 된 회의실에서 했다. 또한 필자가 1965년부터 근무한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에는 미국에서 수입한 에어컨이 사무실마다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에어컨은 창문에 설치했으며 실외기가 따로 없어 아주 길쭉한 형태였다.

에로부터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삼복에 즐겨 먹는 ‘복달임 음식’으로는 삼계탕(蔘雞湯), 민어탕(民魚湯), 팔죽 등이 있다. 이열치열(以熱治熱), 영양이 풍부한 뜨거운 음식을 땀을 뻘뻘 흘리며 먹음으로써 체온을 조절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지혜로운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복중(伏中)에 ‘민어탕’을 일품(一品)으로 여겨 ‘복달임’을 해온 관습이 있다.

여름 보양 민어(民魚, croaker)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어류이며, 민어라는 이름처럼 ‘국민 생선’이다. 민어는 지방에 따라 방언(方言, dialect)도 가지각색으로 방언이 많다는 것은 예부터 우리 국민이 민어를 즐겨 먹었다는 의미가 된다. 서울과 인천 상인들은 두 뺨 미민인 것을 ‘보

글지’, 세 뺨 내외인 것을 ‘어스래기’, 세 뺨 정도인 것을 ‘상민어’, 네 뺨 이상인 것을 ‘민어’라고 불렀다.

전남지방에서는 가장 큰 놈을 ‘개우치’라 칭하고, 법성포에서는 길이 30cm내외인 것을 ‘홍치’라 하며, 완도에서는 작은 민어를 ‘불동거리’라 부른다. 옛 문헌인 자산어보(慈山魚譜)에는 민어를 면어, 표어라 하고, 민어 새끼를 암치어로 기록했다. 전어지에는 민어로 기록되어 있다.

민어는 조기강, 농어목, 민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는 다 자라면 1m가 넘는 대형 바닷물고기이다. 몸통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흑갈색이고 배 쪽은 밝은 회백색을 하고 있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아래턱은 위턱보다 짧고 턱에 2쌍의 구멍이 있다. 식성은 육식성으로 어류류, 다모류(多毛類), 갑각류 등을 주로 잡아먹는다.

민어는 동중국해로부터 일본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해와 남해에 서식하며, 주로 수심이 40-120m에서 생활한다. 민어는 계절 회유를 하며, 겨울에는 제주 근해에서 월동을 하고 봄이 되면 북쪽으로 이동하며 산란기에는 연안으로 접근한다. 민어는 산란 전 살이 차오르고 기름이 풍부해지는 6-8월이 제철인 생선이다.

임금 수라상에도 오르는 민어는 예부터 부모님을 잘 봉양하지 못한 자식들은 후회하며 돌아가신 뒤에라도 드시도록 민어찌거나 민어전을 만들어 부모님 제상(祭床)에 올렸다. 민어의 살은 화나 전으로, 머리와 뼈는 탕으로, 껍질은 무침으로, 부레는 기름소금에 찍어 먹는 별미로 즐길 수 있다.

민어는 육질이 비교적 단단하고 흠어지지 않아 조리 원료가 많이 애용한다. 민어 구입 요령은 손으로 눌러서 단단하고 눈동자가 선명한 것을 선택한다. 손질법은 비늘을 긁고 아가미를 벌려 내장을 빼낸 후 흐르는 물에 씻고 토막을 쳐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뺀다. 깨끗이 손질한 민어는 냉장 보관하며, 장기간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한다.

‘민어탕’은 먼저 된장과 고추장을 덩어리지지 않게 잘 풀어서 토장국을 끓인다. 이때 물 대신 쌀뜨물을 쓰면 좋다. 애호박은 반으로 잘라 반달 모양으로, 파는 굵은 채로 아슷하게 썰며, 생강과 마늘은 얇게 저민다. 끓는 토장국에 민어와 썰어놓은 채소를 모두 넣고 팔팔 끓인다. 민어살이 열추익으면 파를 넣고 한소끔 끓이면 맛 있는 매운탕이 된다. 지리탕을 만들

때는 멸치와 다시마로 낸 육수에 민어와 무·생강·마늘을 넣고 국물이 짭짤하게 되도록 끓인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미나리,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끓이면 된다. ‘지리 소스’와 곁들여 먹으면 일품이다.

민어의 영양성분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비타민과 칼슘, 칼륨, 인 등 각종 무기질이 많이 들어 있다. 효능은 어린이 성장 발달 및 노약자와 환자 원기 회복에 좋다. 비타민 B1과 B2 등은 피로 회복을 돕고, 피부와 점막 등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민어 부레에 들어 있는 젤라틴(gelatin)과 콘드로이틴(chondroitin)이 노화 예방과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 중국 광둥성에서는 민어 부레를 만두피로 이용한 만두가 유명하다고 한다.

민어의 부레(swim bladder)로 만든 민어교(民魚膠)는 목골들이 고급 장롱, 문갑, 경대 등 가구를 비롯하여 국궁(國弓)을 만드는데 접착제로 애용했다. 민어교를 사용하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부레는 경골어류(硬骨魚類)의 체내에 위치한 공기주머니이며, 물고기가 부력을 얻어 수면 가까이 올라오거나 반대로 물 속에 내려가는 등 수중에서 상하 이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다.

옛 문헌기록에는 “민어는 위를 열고 방광수(膀胱水)를 내린다”고 본초습유(本草拾遺)에 적혀 있으며, 일용본초(日用本草)에는 “민어는 오장(五臟)을 보고 기운을 늘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요법에는 ‘민어는 어린이 발육에 좋으므로 자주 먹이면 잔병에 걸리지 않는다’, ‘소화불량에는 민어를 불에 구어 먹으면 좋다’ 등이 있다.

민어(croaker, raw)의 주요 영양성분(per 100g edible portion)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127kcal, 수분 74.4g, 단백질 19.7g, 지방 4.7g, 회분 1.2g, 칼슘 52mg, 인 139mg, 철 1.1mg, 나트륨 107mg, 칼륨 290mg, 비타민A 9RE, 비타민B1 0.05mg, 비타민B2 0.29mg, 나이아신 3.7mg, 비타민C 1mg.

지난 4월 27일 관문점 남북정상회담(Inter-Korean Summit)의 만찬 테이블에 ‘민어해삼편수(民魚海蔘片水)’가 올랐다. 민어는 칼로리가 낮고 지방함량이 적어 다이어트 식단으로 아주 좋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삼복더위에 복달임 일품 음식인 맛있고 영양가 높은 민어탕으로 기력을 보충하여 불볕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하겠다.

사랑의클리닉 - 1 -

건강의 비결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급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애굽기 15:26)

건강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건강은 환경이나 의료의 혜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양식이 건강을 결정한다.(알렌 데버) 무절제한 생활로 불건강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서 건강의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는 것이다. 최근 예방의학의 학문적 결론은 생활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심장병, 암, 당뇨병, 고혈압등의 성인병을 70-80% 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5:26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질병없는 삶이라고 하셨다. 질병없는 삶이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양질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이런 삶을 위하여 포괄적인 건강지침을 주셨는데 이것이 곧 성경말씀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생명을 얻은 자가 새로운 인격과 새삶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새삶이 건전한 생활양식을 가져오므로 건강의 회복이 이루어 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건강하려면 생활양식을 수정하라! 건강의 열매를 거두려면 성경말씀대로 사는 건강의 씨앗을 심어라!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주님과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라!

예수님의 건강 비결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동안 그 엄청난

황성주 박사
사랑의 클리닉 원장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던 비결은 깊은 기도와 순종의 생활과 철저한 건강 관리에 있었다. 예수님이 무슨 건강관리냐? 하겠지만 예수님 만큼 건강이 필요하신 분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건강 비결은 무엇이였을까?

예수님은 “보행 건강학”의 대표적인 모델이시다. 공생애 기간동안만도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천리길 행군을 여러번 하셨다. 걷기는 “경제성”과 “편의성”으로 보아 최고의 운동이며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효과도 큰 운동이다. 더구나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는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다.(걷기를 통한 정도!!)

고개를 들고 입을 다물고 가슴을 펴 힘차게 걸어보라!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고 피곤이 물러갈 것이다. 활기차게 걸으면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혈압이 조절되며 신경통의 통증이 감소된다.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루 30분씩이라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라!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와 휴식을 통한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 주님과와의 관계를 통해, 한적한 곳의 휴식을 통해 신앙과 생의 목표를 점검하라!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건강을 열망하라!

| 칼럼 |

성경력 여섯째 달인 엘룰월이란?

성경력 여섯째 달인 엘룰월이 다가온다. 유대인들은 대속죄 일을 맞이 할 준비로 엘룰월 첫날부터 테슈바를 한다. 대속죄일 전 날까지 사람들과의 악매인 것을 찾아가 풀고 찾아와 용서를 비는 자에게는 어찌하던지 용서를 해주어야하는 시즌이다. 그리한 자에게는 대속죄일 날 모르고 지은 죄인 폐사(불법)등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의 성정을 성결케함을 받게 하신다.

아슈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전에 금식일 시작 한 날이 엘룰월 첫날에 시작하여 대 속죄일 시작되는 날에 마칩니다. 금식을 마치신 아슈아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할 때, 첫번째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뱀으로 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원장 김수정

작은 구원의 집 교회



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너는 다만 그를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였느니라.

세 번째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하였느니라. 이 세번의 답을 듣고는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을 누리려하셨다. 엘룰월을 지내시면서 천사가 수종드는 삶을 누리 가시길...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표어 : 좋은인남 행복만성도(신 33:29절)



장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경학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교회원목원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쪼아찌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아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마티스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편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송 예 배 시 간 안 내 송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시 동구 송리로 16길 11(신선동)
동대구 반도유보라 상가(2층)2018학년도 후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회지도자전문과정 · 전도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 ◆개 강 : 2018년 9월 6일(목)
- ◆교육기간 : 2년 4학기
- ◆교육대상 : 교회지도자, 신학생, 목회자
- ◆수 강 료 : 45만원
- ◆연 락 처 : 각 주임교수에게 연락하시거나 학교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지도자전문반 (010-3641-0685, 신영광 주임교수)
- 전도전문반 (010-5254-0599, 이항관 주임교수)
- 평생교육원 사무실 (031-770-7822~7823)

세계적인 성지전문가 유바울 목사 초청 세미나



유바울 목사

- University of the holy land, Biblical geography(Ph.D.cand)
- 이스라엘 공간가이드(13년째 거주, 가이드 2008)
- 이스라엘 전역을 도보 지도으로 증명(현재 2,600키로)
- 저서 :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 아람땅의 아내 도보 이스라엘

- 주 제 : 성경의 중요한 길
- 일 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전10시~저녁9시
- 교재구입 : 10,000원, 당일 성지책 구입가능, 종식제금
- 장소(인천본원) : 글로리아교회(인천시청지하철역 3번 출구 20미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119, 진영빌딩 2층)
- 연락처 : 010-3641-0685, 신학순 100명 접수받음
- 강의내용 : 오전 - 아브라함의 길, 오후 - 다윗의 도피 경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저녁 - 이스라엘의 중요한 길들, 이스라엘의 동·서물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노원구 교회매매

대지. 95평 건평. 250평

용도. 1-3층

임대료 월 450만원

4-5층 교회. 교육관

금액. 24억원

대출. 있음

위치. 서울 노원구 하계동

☎ 010-2868-7302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상담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요한계시록 5-6장(40)

마귀는 붉은 용, 적그리스도는 붉은 색·자주색·주홍색
음녀는 자주색, 적그리스도와 마귀는 붉은 색 계통으로 표현

〈지나호 이어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또 모든 만물이 찬양합니다.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왕들을 세우는 데에 쓰임 받은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 땅 아래에 있는 금·은 등 모든 지하자원,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때 그 네 생물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스물 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환란 날에 순교하게 하여 금 면류관을 받도록 주된 살리는 역사를 담당할 네 생물과 금 면류관의 당사자가 된 이십 사 장로가 최종적으로 또다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일곱 인봉한 책이 열리므로 은혜시대가 끝나고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시작되어서 끝나게 될 것을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 자세와 중심이 송두리째 바뀌집니다. 은혜시대가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고 일곱 봉인을 여는 것으로 인해서 지독한 환란이 있게 될 것을 깨닫고 믿는 자는 이것을 대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에 제1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수취해 있는 것입니다.

1절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님을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생물이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하기에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본문인데 확대하면 20장까지 본문이고, 계시록 21·22장이 결론입니다. 어린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님을 개봉합니다. 이는 환란이 시작됨을 말씀합니다. 7년 환란의 주인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곧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정하신 뜻이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늘 최고의 복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어린양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곧 일곱 인을 단계적으로 떼시는 것입니다.

어린양이 첫째 인을 떼면 일곱째 인까지 다 떼는 것을 이미 계시록 5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된 본문에 ‘어린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님을 여실 때 하고 읽으면,

만저 일곱 인이 무엇인지를 육화원칙에 따라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1,200일을 다른 말로 하면 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이어지는데 그 둘을 합치면 7년입니다. 일곱 인이 다 떼어지면 7년 환란이 끝나는 것인데 이 근거는 단 9:27의 ‘환이레’입니다.

70이레가 완성되면 죄가 영원히 종결되고, 의가 영원토록 서며, 모든 말씀이 응해지고, 거룩한 이가 기름부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상과 예언이 응해질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70이레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응해지는 것입니다. 70이레 중에 69이레는 자났고 남은 한 이레가 어린양 예수님이 일곱 인으로 떼시는 7년 환란인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들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계시록이 막히는 것입니다.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는 전 3년 반으로 보면 되고, 여섯째 인을 후 3년 반으로 보면 됩니다. 일곱째 인은 다시 전 3년 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7년 환란 날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8장에 일곱째 인을 떼면서 나오는 일곱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의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사건들이고, 여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후 3년 반에 되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각 사건들은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그 때와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서, 틀니바뀌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물리듯 계시록이 아주 조직적이고 빈틈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이 잘되지 않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어린양이 첫째 인을 개봉하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사도요한입니다. 사도요한은 우리의 대표이므로 어린양이 첫째 인을 떼 때에 그 자리에 사도요한과 우리 각자가 있는 것이 되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연구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다 놓칩니다. 또 네 생물이 명령하는 “와서 보라”는 말씀도 옆두에 두지 않습니다.

어린양이 첫째 인을 개봉하면 첫째 생물이 나와서 명령하기를 “와서 보라”고 합니다. 누구를 오라는 것인가? 어디를 와서 무엇을 보라는 것인가? 계시록은 심오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체계기부터 신

약 유다사까지 깨닫고 나아 마지막 결론으로 계시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양이 첫째 인을 떼어서 환란이 시작되면 맨 먼저 첫째 생물이 “오라”는 것을 환란 탄 자를 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라”는 것은 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을 깨달았듯이 첫째 생물이 사자 같은 생물이 살리는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첫째 생물이 어떠한 생물이냐는 ‘사자’라는 것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서 모든 짐승을 잡아먹듯이 첫째 생물이 사자 같아서 모든 짐승을 잡아먹는 그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사 49:20).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속에 육적·세상적인 요소,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 인도받지 않은 부분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이 모두 짐승 같은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잡아먹는 곳이 어디인가요? 예수님이 못 박으신 골고다 십자가 앞입니다. 사자 같은 첫째 생물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짐승 같은 것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무결한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순교시키려는 것입니다.

첫째 생물의 역사를 통하여 육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영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생물의 살리는 역사를 통해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깁니다. 2절에 ‘그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대로 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 생물로 계속 이길 때 마다 면류관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첫째 생물이 오라고 할 때 환란 탄 자가 옵니다. 계시록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란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무천년주의 입장에 서서 환란을 복음주의라고 주장합니다. 혹은 에녹과 엘리야가, 모세와 엘리야가 말 타고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환란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곱 봉인을 떼시면서 환란 탄 자로 오실 리가 없고, 네 생물의 명령에 의해 오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환란을 타고 오시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많은 왕관(렐: 다아테마타)을 쓰셨습니다. 왕관은 왕의 권세로 다스리는 자의 표시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III.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24)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밀

〈지나호 이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리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막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쇠요, 믿음의 성장 원리를 알려주는 귀한 구원의 서정이다.

성막 속에 숨겨진 비밀과 의미

성막 안에는 놀랍게도 다섯 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1. 성막은 하늘 성소 모형의 비밀이다.

하늘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죄 없고, 흠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 성소의 모형을 따라 성막을 짓게 하고, 천국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모든 인류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회막문(구원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문을 상징하며 이곳으로만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성막뿔(죄성):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한다. 번제단(존엄성):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웅시하고 회생을 상징하며 공의와 심판적 의미를 말한다. 물두멍(거룩성): 성령님의 주관하심과 거룩하심을 말한다. 성막(임재성):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하심을 말한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비밀

성경에는 예수 탄생과 고난이 예언되어 있으나, 예수 생애에 관하여는 이 성막 속에 예표 되어 있다. 예수 탄생(회막문): 성막의 회막문은 구원의 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고난(성막뿔): 어린 양을 잡는 성막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 십자가(번제단): 인간의 죄가 전가된 양을 제물로 태우는 번제단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물로 산제물이 되어 죽어야 하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부활(물두멍):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손발을 씻는 곳으로 의와 거룩성을 뜻하는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승천(성소): 성소는 예수가 부활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오르심을 의미하며 지성소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으심을 상징한다. 즉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를 구하신 전 생애를 하나님은 성막에 예표해 놓으셨다.

3. 구원단계의 비밀(천국의 Direction) - 구원의 서정 5단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구원에 이르는 디렉션을 예비해 놓으셨다. 소명 단계(회막문): 누구든지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문으로, 소명(Calling),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단계이다. 회개 단계(성막뿔): 예수를 영접했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참 회개 단계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

칭의 단계(번제단): 참 회개를 한 자의 대속물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으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구속과 칭의 단계이다. 중생 단계(물두멍):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서(중생), 성령으로 오신 신랑 예수를 만나는 단계를 말한다. 성화 단계(성막): 신랑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혼인(연합, 접붙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드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단계를 말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디렉션이다. 그러나 개종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 과정을 거쳐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가르쳐 줌으로써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고 단계마다 비전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예배 모형의 비밀

찬양(회막문): 성막의 회막문은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찬양의 의미가 있다. 회개(성막뿔): 성막뿔은 죄인이 통회, 자복하는 곳으로 오늘날 회개에 해당한다. 헌금(번제단):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올려놓는 곳으로 오늘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 순서에 해당한다. 대포기도(물두멍): 물두멍은 의로 거듭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님을 초창하는 기도순서이다. 설교(성소): 성막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생명을 살리는 강단의 설교를 의미한다. 축도(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성상위)께서 축복해주시는 축도 순서를 예표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들은 구원에 이르는 훈련이다. 그러므로 순서, 순서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영성을 느끼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5. 믿음의 점검과 은혜의 비밀(렐 47:1-12)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관찰하시며 저울에 달아(적량) 보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격려하시며 또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따를 수도 있다. BC 539년경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연회를 베푼데 중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 ‘메네 메네 메델 우바 르신’이라는 글자를 썼다. 이는 ‘세고 또 세고 저울에 달아보았지만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날 밤 왕은 죽고 바벨론도 얼마 안 가 망하였다.

결국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단 5:5, 24-28).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어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7장 1-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척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1) 회막문(물)이 흐를 웅달샘 은혜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을 비유로 웅달샘 은혜라고 한다. 웅달샘이 있기에 산토끼가 풀을 먹고 산다. 그러나 웅달샘은 너무 양이 적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어린아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면 될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 늘 시기와 분쟁이 따라다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전 3:1-3).

2) 성막뿔(말뿔)에 참: 도랑물 은혜

하나님께서 측량해 보니 믿음과 은혜의 물이 밭에 채다고 하신다. 이것은 도랑물 은혜인데 물이 가능하게 흐르는 하지만 손발은 적실 정도는 된다. 영적으로 볼 때 신앙이 성장은 했으나 아직은 내 의가 시퍼렇게 살아서 풍요로움 없고 살벌하고 세상적 기세가 등등하여 천바람이 분다(약 4:11-12).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함흥교수 총회장)

주일예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일아기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세백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화로 62-5(봉교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서승열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적경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전(전)총회장)

주일예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 밤 예배 오후 7시30
세백예배 새벽 5시
금요일아기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나운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임마누엘교회



담임 백은성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3-5
☎ 031-406-7793 H.P: 010-2479-7793

| 목양칼럼 |

『선협적 고난 체험』

지난 주는 30주년 다큐제작을 위해 촬영하느라 완전 맘으로 먹 을 감아버렸습니다. 봄이나 지난 번 3M 트립 때 촬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서 로 소통이 부족해서 별도의 시간 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111년 만 에 최고의 더위를 기록한 때에 그 려한 용화산기도원을 올라갔으니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만 촬영을 한 것이 아니 라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을 여 러 번 찍었습니다.

게다가 올라갈 때 앞모습을 찍 조, 또 뒷모습을 찍조, 심지어는 올라가는 발을 찍는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 다를 반복 했겠습니까? 또 경관이 좋은 곳은 내려올 때도 다시 찍었 으니 말이지요. 내려와서 정신을 차 리고 보니가 와이셔츠는 그만두고 넥타이까지 축축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추위는 잘 참지만 더위는 정 말 못 견디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군산사랑교회와 남원까지 가서 대낮에 피아별 아래서 촬영을 하 는데 얼굴이 얼마나 새까맣게 아 는 버렸겠습니까? 또 화순백암교 회에 가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날도 촬영을 위하여 일찍 무등산제일기도원으로 갔습 니다.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정권사님을 부축하고 가야 할 것 이 아닙니까? 그날 가면 졸을 텐 데 PD께서 정권사님이 먼저 앞장 서서 가고 제가 다시 내려가서 뛰 어 오면서 "권사님, 왜 이렇게 잘 가세요? 팔손 노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가시면 돼요" 이렇게 정권사님께 말을 하라는 것입니 다. 그래서 다시 달려가다가 갑자기 허리가 빠듯한 것입니다. 그러 니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길도 힘 들었지만 촬영할 때는 정말 힘들 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촬영을 마쳤으면 그 때라도 빨리 내려와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정권사님이 기도원에서 라면도 드시고 삶은 감자 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두 시간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며 라 면과 감자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 만큼 정권사님을 잘 섬긴다는 거 겠죠. 정권사님께서 교회에서는 밥도 잘 못 드시고 감자를 삶아드 려도 안 드시는데, 그곳에서는 드



시고 싶다고 하니 권사님을 배려 해 일부러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등반이 의자에 앉았다고 두시간 동안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데 허리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내려와 광주 한 의원에 가서 찜질도 하고 찜도 맞 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 차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얼마 나 힘들었는지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는 길도 김문기장로님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차 안에 서 생각해 보니, 이것은 장년수련 회를 앞두고 은혜를 방해하려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 니다.

문득 2015년 장년여름수련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때 수련 회 기간 중에 갑자기 신장결석으 로 통증이 찾아와 숨도 쉴 수 없 는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신장 결석을 앓아본 사람들은 알지만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크 다는 것이 바로 신장결석의 통증 입니다. 한 번 통증이 시작되면 허 리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 오고 숨도 못 쉬며 끔찍도 할 수 없습 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르핀까지 맞으면서 육체의 한계 와 고통을 초월해 집회를 인도했 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몸이 불편 하니까 저로서는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투혼의 몸부 림으로 설교하는 제 모습에 성도 들이 더 역설적인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귀 가 어떻게든 은혜를 방해하고 못 받게 하려고 시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였 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은혜를 방해하고 시험을 주려는 모든 마 귀의 역사는 물러가라." 그러면서 침도 맞고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 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 이 스쳐갔습니다. "허리를 다치니 까 정말 끔찍도 못하네. 아, 인간 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그렇습 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허 리가 썩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 합니까?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진짜 절반 가까이 좋아진 것입니 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송 군 장로님 친구인 이종덕 물리치 료학박사님이 제 허리를 만져주자 거의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금 요일부터는 조심스럽게 심방도 다 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 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우 리 성도들이 장년여름수련회에 참 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 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런데 제가 이렇게 아픈 게 일종의 선협적 수난이고 대표적 고난이라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년여름 수련회에 행여라도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제가 미리서 선협적이고 대표적인 고난을 체험 했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아 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오히 러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번 수련회에 주실 은혜와 축복 을 더욱 더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팔 불어

청소년, 73개국 2만여명 참석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세계렘넌트대회 성대히 개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언약을 붙잡은 세계청소년 2만 여 명이 7월31일부터 3박4일 일 정으로 일산 킨텍스 제 1 전시 장에서 제21차 세계렘넌트대회 가 성대하게 개막되었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이사장 류광수 목사)가 주최하고 세계 렘넌트총국(총국장 강태홍 목 사)이 주관하는 '2018 세계렘넌 트대회'는 73개국에서 2만여 명 의 청소년이 참석했다. 주요 내 빈으로는 바누아투 대통령 내 외, 나라사랑기독교인연합 상임 의 장 권영해 전 국방장관, 한국기 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기총 공동회장 25명등 이 참석했고 교계 언론기자 70 여명이 취재 열기를 더했다.

세계렘넌트대회는 국내 복음 주의 청소년 집회로는 국내 최 대 규모이다. 세계렘넌트대회는 2016년 1만2천명, 2017년 1만5 천명 올해는 2만 명으로 늘어났 다. 대회 참가하는 청소년들 회 비는 25만원 가량으로 모두 자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참가자 가 계속 늘고 있어 대회측은 몇 년 후엔 대회를 수용할 만한 컨 퍼런스홀과 숙소가 국내에서 가 능할지 고민할 정도이다.

이날 본대회 개막식에 앞서 청소년의 미래비전 인턴십 박람 회장인 GATE EXPO(인생, 나의

미래)개막 커팅식이 오후 5시에 진행되었다. 이후 축하공연이 진행되었고 참여 국가별 대회가 임박하면서 열기는 고조되었 다.

기수단이 무대를 채우고 나서 류광수 목사(세계복음화전도협 회 이사장)가 환영사를 했다. 류 목사는 환영사에서 "유럽교 회와 미국 교회가 문을 닫기 시 작했고 한국교회 역시 빠른 속 도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 러나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후 대 즉 그루터기, 영어로 렘넌트 를 통해 복음을 회복시켰습니 다. 지금 전 세계에서 렘넌트들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를 가르쳐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이번 대회에 정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찾아야 합 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 트 통해 시대를 살렸습니다. 어 비는 25만원 가량으로 모두 자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참가자 가 계속 늘고 있어 대회측은 몇 년 후엔 대회를 수용할 만한 컨 퍼런스홀과 숙소가 국내에서 가 능할지 고민할 정도이다.

이날 본대회 개막식에 앞서 청소년의 미래비전 인턴십 박람 회장인 GATE EXPO(인생, 나의



넌트운동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 다. 또 한기총 대표회장님과 공 동회장님들 역시 이 전도운동이 지속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사랑기독교인연합 권영해 장관님으셨는데 정말 복 음으로 나라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운동은 복음이 증 거 되는 운동으로 우리는 심부 를 할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 본대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 되길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 라고 환영인사를 했다.

이에 앞서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축사했다. 엄 목 사는 "세계렘넌트대회 오신 여 러분을 환영하며 여러분들이 한 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희망이다" 라고 축사했다. 류광수 목사의

환영사 이후 합창단과 참석 청 소년들이 함께 찬양과 경배로 이날 개막식은 끝이 났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중점적 으로 추진하는 '렘넌트운동'은 복음으로 무장된 후대를 키우는 운동이다. 21년을 지속해온 세 계렘넌트대회는 해마다 렘넌트 운동의 열매를 확인하는 대회이 기도하다. 렘넌트운동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대륙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올해는 해 외 73개국에서 참가하게 된 것 이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문 을 닫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외 면하는 상황에서 다량방 렘넌트 운동이야말로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교회의 희망을 보여주는 대 단한 성과였다.

부르짖는 중보기도는 축복의 비밀

선한목자교회, 박진구 목사 초청 부흥성회

LA코리아타운 소재 선한목자 교회(Good Shepherd International Church, 담임 장승종 목사)는 지 난 28일(목)-29일(주일) 전주안디 옥 교회 2대 담임인 박진구 목사 를 초청 교회 창립기념 부흥성회 를 개최했다. 나흘간 진행된 부흥 성회에서 박 목사는 '오리저널 축복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성도 들의 축복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 해 말했다.

특히 27일(금) 열린 오후 성 회는 김 피터 목사와 중창단이 찬양을 인도한 후 장승종 목사의



사회와 기도 후에 박진구 목사가 예레미야 33장 2-3절 성경본문을

중심으로 '중보기도와 축복'에 대해 설교를 했다.

박 목사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누군가 를 축복하시고, 중보기도 자를 위해 축량 못할 놀라운 보너스 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중보 기도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이 어야 한다. 축복은 하나님의 비 밀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는 것은 우 리의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명령 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다" 고 강조했다.

한편 선한목자교회는 지난달 24일 구 미주복음방송 빌딩에 예 배당을 마련하고 창립감사예배를 드림바 있다.

신정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한총연]

Korea Counsel Christian Conservative Denominations

대표회장



박 동 호 목사

총 재



허 영 무 목사

상임교문



남 성 운 목사

저희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평 화,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연합기관으로서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을 존중하고 연합을 통하여 하나됨을 추구하 며 함께하고 자 하는 교단과 단체를 환영합니다.

<http://www.kcccd.org> <http://www.한총연.org>

☎ 1588-0342 FAX : 0505-303-0342

pdh@kcccd.org kcd@kcccd.org

추진사업

- 교단, 단체 화합을 위한 친교 유대사업.
- 기독교 문화발전 및 문화개발사업.
- 국제간의 학술 및 문화교류사업.
- 사회봉사 헌신을 위한 빈곤 계층 이웃사랑 선교사업.

- 목회자 자질을 돕기 위한 신학 교육사업.
- 세계선교 및 국내전도 문서사업.
- 국내의 교회설립 및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한총연 연혁

- 1987년 12월 14일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 한기보) 허가를 받음
- 제31차 정기총회를 계기로 한기보와 분리, 2017년 3월 제31차 정기총회를 별도로 개최 한총연으로 법인 발족하기로 함
- 2017년 3월 한총연 총회서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선출,
 - 2017년 4월 28일 한총연 법인 설립 허가 받음
- 2018년 1월 8일 새해 신년 하례(시무) 예배

칼빈의 설교관(說敎觀) 4

〈지나호 이어서〉
이것은 성례전에 관한 그의 교리와도 통하는 견해인 것이다.

즉 성례전에서 주님의 은총이 임하듯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이다. 성례전의 떡과 포도즙은 객관적 실체이다. 그것은 떡과 포도즙 그대로 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주님이 약속하신 실재(예수님의 피와 살)를 먹게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효력이 나타난다. 이와같이 설교자와 설교를 청중이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약속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이다.(살전2:13). 설교는 기계적으로 효력을 발(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 효력을 발(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어떤 설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신비로운 감동하심의 역사로 말씀을 사용하실 때 그 설교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삶과 피를 먹음같이 믿음으로 설교자의 말씀 듣는 자가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다. 칼빈은 성례(聖禮)와 설교가 기록된 말씀에 의존해야 하나, 둘 다 성령의 은혜로운 임재로 채워질 때에만 실제적 은혜의 방편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3) 구원(救援)과 심판(審判)의 이중성(二重性)의 설교

칼빈에 의하면 설교에는 두 가지 목소리 (이중음성)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온유(溫柔)한 음성이고, 둘째는 이리와 도독을 쫓는 노성(怒聲)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이사야 주석 55:11에서 "말씀이 신자들을 구원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이라면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악한 무리들을 심판하는데도 충분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증거의 역할은 죄인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까지 반발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교는 구원과 심판의 양면적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한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다른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역사함과 같은 의미(고전2:15-16)인 것이다. 실제로 칼빈은 자신에 대한 많은 비난(非難)과 반대자(反對者)들을 극복(克服)해야 했다.

베자(Beza)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제네바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개들을 "칼빈"(Calvin)이라고 부르으로써 개혁자에 대한 자신의 경멸감을 공공연하게 표현했는가 하면, 혹자는 칼빈의 이름을 줄여 가인(Cain)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 대한 증오심"을 광계 삼아 성찬에의 참여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칼빈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사람을 만족(滿足)시키려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무익하게 된다... 만족할 만한 복을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만이 필요하다. 선하고 진실한 목자는 성경을 간신히 해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덕을 주기 위하여 진지하고 분명(分明)하게 사용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복되자는 어려움이 많아도 진실해야 힘을 가르친다. 무엇이 선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일 뿐 아니라, 그들을 책망(責望)하기 위해서도 진실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청중(聽衆)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비록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복음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설교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을 듣는 자가 곧 내 말을 듣는 자라고 말하셨습니다. 모든 교직자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 설교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 듣기를 멀리하는 자들은 마치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거절하고 또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멀리 뿌리치고 있는 사

서명법 목사
예수매일리처지 담임목사



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러 가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의 구속적 섭리(變理)를 거절하는 것이며, 결국 자신을 구원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으려 한 "여러 사람들의 반역"을 이야기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사역을 다화하였다.

"아무것도 아닌 이 버릇없는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 사실을 자기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 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곧 '당신들이 우리에게 명령할 순 없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도 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때로 임합니다...." "누구든,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쪽으로 가야한다는 식으로 명령(命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념해 가르치기만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분 주님이 계시고 그 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여기 서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나를 통해 전진시키기 원치 않으며, 내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가져올 생각도 없으며 오직 내가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반박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복종해야 하며, 모든 거만한 것들이 꺾여야만 하고 또 큰 자나 작은 자 할 것 없이 자신이 복종해야 할 이에게 주동(主動)을 내밀거나 눈을 치켜 뜨는 피조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고하여 설교(說敎)를 통해 다스리시고 명령(命令)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對抗)해서는 안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복음(福音)의 제시는 꾸밈없이 용기(勇氣)있게 제시(提示)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제2장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기초(23)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

〈지나호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하여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고 이를 교육하기 위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어떠한 결과도 예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나 치밀한 전략, 그리고 유능한 전술 없이 영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도 준비가 미비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 훈련과 교육으로 단련을 시킨 후 그의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영성교육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

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다. 경건은 결코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경건은 예전부터 영성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는데 경건의 진정한 모습 속에는 타자 중심이 들어있다.

진정한 영성이란 그리스도인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 자신을 비워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GC)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볼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IC)에 성실한 전적으로 타자 중심적인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격리되어 이루는 경건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영성의 삶이라 할 수 없다.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 받아 그들 모두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

홍향표 목사



의 삶을 산 사람들 중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더라도 성공이라고 인정할 만큼 위대한 인물들이 많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계신 사항이다.

결국 영성교육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책임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성교육은 단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말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증거 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향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삶의 무대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타락한 세상마저 변화시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영성교육이 인간의 진정한 회복이라면 이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역시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 여름 타작마당 1 |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본문 28절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이 비유를 배우지 않으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알 수 없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름을 알아야 한다. 29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때가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우리 예수님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고 하였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우리 예수님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때가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는 말씀이다.

또한 30절을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

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 세대'를 알아야 한다. 이 세대를 풀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여름 타작마당'에 대해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

여름이 되면 타작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다. 타작 준비는 성공한 자들에게는 너무도 큰 축복이다.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이다. 그러나 타작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망하는 기간이다. 여름 타작마당은 준비가 잘된 자들에게는 너무도 큰 축복이다. 임금님을 만나는 축복이요, 알곡이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는 축복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일이다. 기가 막힌 시간이 바로 여름 타작마당에 있다.

그렇지만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알곡은 벌레로 인하여 망가지고 그 가치는 끝이다. 또한 병든 알곡은 알곡의 가치가 없고 버려질 뿐이다. 벌레 먹고 병든 열매들은 탈곡기에 들어가 봤자 소용이 없다. 병든 알곡들은 탈곡기에서 가려지기 때문이다. 결국 짐승의 밥이 되고 만다. 병든고 벌레 먹은 곡식들은 짐승의 밥이 되지 아니하면, 불속에 들어가고 만다. 이것은 바로 지옥 불에 들어가는 모형으로 보여준다.

정기남 목사
편집인



성경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국화이다. 일본은 사쿠라가 국화이다. 이렇게 세계 각 나라는 자국의 국화가 있다. 이처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우리는 여기 무화과나무를 바로 알아야 한다. 무화과나무를 바로 알았을 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와 여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요 곧 뉴스이다.

본문에서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그 때가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고 하였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타작을 해야 한다. 농부는 타작 준비를 한다. 단 2:35 '그 철과, 진흙과, 낫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축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들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영의의 졸업장 수여 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정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영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창기도원
유초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외암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여민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2018 동여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예배 : 오전 11:00
- 주일전야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학생부 : 통관예배
- 수요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지저스타임즈 신문 애독자 여러분께

본지는 구독료 및 광고료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도 부흥과 발전,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전 직원일동이 기도드립니다.

신문은 애독자님들의 구독료 및 선교비, 광고료 또는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는 올 10월이면 창간 13주년을 맞이합니다. 본지는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국내외로 복음과 교회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http://www.jtntv.kr> & <http://www.cpj.kr> 두 곳에서 jtntv로 또는 cpj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교계소식과 각 교회의 주일예배 설교를 영상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소망합니다.

1년 구독료 50,000원, 신문 방송을 후원하실 분은 1구좌 1만원부터~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본사 대표 010-5468-6574(정기남 목사)로 문자주시면 신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07837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실천합니다.)

지저스타임즈 대표 정기남 목사

죽은 자들을 산 자로 살리신 캄보디아 선교의 이적

전하는 말씀에 현지 목회자들 “너무 놀랍고, 영적 깊이가 심오하여 큰 감동이요, 말씀이 우리 영을 살렸으며 새롭게 변화 되었다며 고백



하나님이 캄보디아 선교를 허락 하셨다. 7월10일부터 17일까지 8일 간의 짧은 일정의 단기선교로 장한국 목사 외 박민규 사모, 김진원·권운영 집사 등 4명의 선교단원이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했다. 캄보디아는 97.6%의 크메르족 중심의 1,600만 인구와 우리나라의 1.8배 면적의 나라이고, 크메르어를 사용한다. 전통적인 불교 국가요 뱀 우상의 나라이므로 문자, 사상은 물론 건축물이나 조형물 등이 뱀의 형상들이다. 개신교는 1% 정도요, 목사들은 너무도 희귀한 편이다.

11일 아침에 풀러퍼어 교회 성도인 '룬찬나'가 선교단원을 찾아와서 주님을 대접하듯 섬겼다. 룬찬나가 성도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장 목사가 프놈펜에 속히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고백했다. 그의 영이 기뻐하며 마음이 불일듯 사모하였다. 12일 첫 번째 말씀 집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프놈펜 기독교 신자나 목사가 지금 죽은 자인가?, 아님 산 자인가?를 물어 오프닝 메시지에서 충격적으로 문제제기하면서 말씀 강의를 시작되었다.

듣는 그들이 화들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첫 시간부터 말씀 강의에 몰입되었다. 또 강의 교재로 '산

자의 하나님'을 Textbook으로 탐구하게 되면서 30명의 캄보디아 현지 교회 젊은 종들과 담임목사들이 참여했다. 집회시간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큰 변화의 역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강의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열납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히브리인 된 것과 똑같이 우리도 세례 통해 육의 강을 건너 영적 히브리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예컨대 데라는 죽은 자요(행 7:4). 이는 육이 살아있다 해도 영이 죽은 자를 가리키고(창 11:32) 반면에 산 자는 아브라함이니 그는 영적으로 죽은 아비를 과감히 말씀 순종으로 떠났고, 본토가 하늘나라로, 천국이 성령 하나님으로, 육신 아비의 기압이 아닌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업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로 바뀐 것을 우리에게 산 자의 본으로 계시하고 있음을 장 목사가 설교하러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총격과 함께 새롭게 깨달았다.

그들이 말씀의 영권 역사에 첫 시간부터 붙잡혔다. 영어강의를 캄보디아어로 통역하는 유익 목사도 그 말씀을 특별히 받아 적기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역사로 장



한국 목사와 한 입이 된 것 같았다. 13일 둘째 날 집회에서는 갈 3:27-29말씀으로 시작,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다. 또 아브라함의 유업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집회 중간 쉬는 시간에 권운영 집사의 천사 같은 맑은 목소리로 찬양하며 집회 분위기를 영감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14일 마지막 집회는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했다. 프놈펜의 날씨도 주님이 주장하여 서늘한 환경 하에 사모하는 각 심령에 은혜를 더해 주셨음을 깨닫게 됐다. 특히 온전장로교회 담임 소위 목사님은 “구약 시대 아브라함 그때 당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으로만 성경을 읽고 가르쳐 왔었는데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우리에게 지금 친히 해당되는 말씀이며 또 친히 이루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은혜 받은 바를 간증했다.

박씨가 20대 주니어 패스터는(Junior pastor)는 말씀을 사모하므로 집중하여 계속 받아쓰고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받은 말씀을 되새겼다. 참석하신 목사

들 모두가 “너무 놀랍고, 영적 깊이가 심오해서 크나큰 감동이요, 말씀이 우리 영을 살렸으며 새롭게 변화 되었다.”라고 은혜 받은 것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부디 장한국 목사가 다시 캄보디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을 정중히 간청하기도 했다.

특별히 주사랑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동참하며 기도하게 하였고 박달수 선교사도 “이번 세미나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물출되었지만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게 됨은 오로지 장한국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이 영여 세미나였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다.

마지막 15일 주일 날은 풀러퍼어 교회 설립예배를 드렸다. 마태복음 16:16-18 말씀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 교회임을 선포하였고 참석하신 분들이 모든 은혜를 받았고, 주사랑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선물을 share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불모지 같은 캄보디아에 증거,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였으니 이후로 더욱 확산되게 하실 것을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사랑교회 집사 김진원 기자



| 목사코너 177 |

아브람이 99세 되기까지 기다리신 여호와 (창16:15-17:5)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예장진리 총회장/지저스타임즈 부이사장, 부총재

하나님이 아브람의 찌꺼기·불순물을 다 뽑아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 곧 아브람이 99세 되기까지 공들이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되심을 계시하시며 역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또한 깨우치며 믿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카나안 땅에 들이신 후 곧바로 네 씨가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래에게 아이가 없자 의심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몸종 하갈로 아이 낳아 아브람의 씨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아브람이 사래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창16:2) 결국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불신앙한 것이 왔고 이는 큰 죄악이요 하나님을 크게 실망한 한 것이 됩니다.

이 같은 일은 아담의 경우도 똑같은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결과는 죽은 자, 지옥심판 받는 자가 되고 말았지요. 종말의 교회들도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여 비진리로서 영적 타락,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음부로 떨어짐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되어서야 주께서 나타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람의 잘못된 것, 찌꺼기를 깨달아 깊숙이 회개하여 그 신앙중심이 완전히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신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하갈이 임태한 순간부터 아브람과 그 집안은 평안은 없었고 난리가 났으니 아이 잉태한 세도를 부려 주인인 사래를 멸시·박대하는 하갈, 또 사래가 그다음엔 하갈을 학대하면서 집을 뛰쳐나가고 만 하갈, 하나님 말씀을 버린 아브람의 그 심정은 심히 고통하며 슬퍼하며 한탄하게 됨은 그야말로 큰 물고기 속에 삼켜진 요나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됐구나' 한 때에 나타

나셨으니 그것이 곧 아브람 99세 된 때요. 첫 일성의 말씀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고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는 아브람을 회개 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되 네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사상으로만, 또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로만 살아가도록,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살 때 온전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더불어 말씀하시며 언약을 세웠지요. 비로소 아브람은 영교가 이뤄지게 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 언약을 세우셨으니 얼마나 황송하고 복된 일 아닌가? 그저 주 앞에 털썩 엎드려질 뿐입니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육신의 아비가 지어준 큰 아비란 이름인 아브람은 없어졌고 참 생명의 아버지가 지어주신 만민의 아비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완전히 바뀌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게 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뤄지리라. 할렐루야

‘복 있는 자의 기적 같은 축복’

은혜한인교회 박순애 전도사 초청 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지난 12일(목)-15(주일) 4일간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는 주제로 2018 여름 성령부흥성회를 가졌다.

이번 성회는 사단법인 국제사랑재단 홍보 대사이며, 의정부교도소 정신교육 강사인 박순애 전도사가 초청 강사로 나서 스내 인생의 창조자(이사야 45:7) △회개의 강물에 내 영혼을 씻다(예레미야 17:9-10) △고난을 딛고 기적으로(마태복음 19:26) △생명과 복을 택하라(신명기 30:15-16)는 등의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박 전도사는 성회 셋째 날에 '복 있는 자의 기적 같은 축복' (시편 1:1-3)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



했다. 박 전도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 에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의 뜻과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도사는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모험이다. 기도의 무릎보다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없다. 복 있는 자의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한다. 둘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혜한인교회 교육부는 여름성령부흥성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를 대상으로 '교육부 부흥성회'를 열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옥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103회 정기총회 공고

총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서기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부서기



전상열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회록서기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회록부서기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회계



김정미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부회계



김진환 목사
(주사랑교회)

총무



정요한 목사
(꿈의교회)

본 교단은 뜻을 같이할 개 교회 및 노회와 총회의 영입을 환영합니다.

- 일 시 : 2018년 9월 21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주사랑교회(총회장 장한국 목사시무)
- 총 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내손동)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H.P 010-9621-9627

대한노회 교역자 하계수련회 공고

- 주제 : 하나님이 쓰시는 철장이 되자
- 일시 : 2018.8월 20(월)-22(수) (2박3일)
- 장소 : 충주 컨벤션리조트(충주지점)
- 주소 : 충북 충주시 양성면 산정장수1길 103,
- 전화 : 043-840-2700
- 서기 : 010-9621-9627(박민규목사)
- 준비물 : 성경/찬송, 세면도구, 개인휴대품, 간편복
- 주최 : 대한노회
- 협찬 : 지저스타임즈(JTNTV)
- 찬조 : 기도하면서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세속적인 젊음의 특징

성경: 전도서 11:10/12-25 찬양: 523

세속적인 젊음은 일시적이고 헛되며, 너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행복을 주지 못하고 슬픔과 비애만을 남깁니다. 때문에 성도는 영적 젊음을 위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인간은 노이가 들면 손과 발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며, 이가 빠지고, 시력이 약해지며, 청력이 약해져 노래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가 없기 때문에 씹는 소리가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여 쉽게 잠이 깨고, 머리카락이 희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집인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성도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에서 창조하신 이요, 사람은 죽은 후에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처소요, 실제의 고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임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제목: 신앙으로 인한 양육이 주는 유익

성경: 전도서 12:9-14 찬양: 524

인생을 신앙으로 양육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마땅히 갈 길과 행할 길을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출18:20). 또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며(신4:1),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게 해 주고(골6:24), 진리 가운데 살게 해 줍니다(시86:11). 뿐만 아니라 참 지혜와 주의 뜻을 행하게 하며(시143:10), 사람의 본분을 알게 하고(전12:13), 주의 은혜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합니다(행1:8).

제목: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성경: 이사야 1:11-15 찬양: 35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행과 진정으로 제사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종교 행사의 외면적 기록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면적 기록함을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다.

제목: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이유

성경: 이사야 1:15 찬양: 309

그것은 기도자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자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함은 기도자의 악행을 말하는 것으로,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와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므로 불의한 자를 참지 못하시며 외면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제목: 이사야 당시의 부패 상황

성경: 이사야 1:22, 23 찬양: 311

은이나 포도주 등에 혼합물이 섞이며, 방백들은 뇌물을 구하고 불쌍한 자들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공평해야 할 백성들의 관원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는 악습은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불의를 행치 않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마5:13-16).

제목: 아람 족속을 버리신 하나님

성경: 이사야 26 찬양: 290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불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되었으며 이방인과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인 종교적 타락이요,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람 족속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제사장 족속이 되기로 하나님과 굳게 언약한 것을 잊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제목: 여호와와의 한 날

성경: 이사야 2:12 찬양: 292

'주의 날', '종말의 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죄인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지는 심판의 날이고, 의인들에게는 축복의 상급이 주어지는 구원의 날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날은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결박당하여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최후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여호와와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생각하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목: 그의 위엄과 영광

성경: 이사야 22:1 찬양: 314

이는 세상과 사람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이 소알 성으로 피하여 심판받는 것을 목도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이 두렵고 큰 것이므로 이를 피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난처가 됩니다.

제목: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인생 / 아이와 부녀

성경: 이사야 22:3, 3:12 찬양: 315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특히 방백들이나 점술가들을 믿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는 죽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하겠습니까. 아이와 부녀는, 어리석고 감정에 쉽게 지배당하는 겉쟁이의 대명사로 유대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정치적 능력이 없는 자들의 통치는 결국 국가적인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제목: 심판이 임박할 때 시온의 딸들의 행동

성경: 이사야 3:16 찬양: 323

교만하여 목을 늘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인들은 부패하고 교만하며, 사치스럽게 온갖 장식을 하고 다녔는데, 특히 우상을 숭배하여 반달 장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상 숭배와 더불어 요란스런 치장과 요염한 몸짓을 통해 대낮에도 남자들을 유혹하고자 하는 음란함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목: 여호와와의 싸움

성경: 이사야 42:5 찬양: 325

여호와와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종말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나 '가'르'로도 불려지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메시아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연기, 화염의 빛을 만드신 이유는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시에도 하나님은 그의 선민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만드셨습니다(출13:21, 22).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피난처와 안식을 구하는 의로운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하십니다.

제목: 들포도의 의미

성경: 이사야 52 찬양: 324

들포도는 '악취를 풍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바아쉬'에서 파생된 명사로써 먹지 못하는 작고 딱딱한 신포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포화와 그것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포도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말씀으로 거듭나 주님의 빛과 향기를 발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

성경: 이사야 57 찬양: 338

공평과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평 대신에 포화와 피흘림을 행했으며, 의로움 대신에 부르짖음과 통곡 소리가 넘치게 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을 원하셨으나 인간은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해도 선을 행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목: 징벌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

성경: 이사야 58:23 찬양: 337

토지 강탈, 술 취함, 불경건, 도덕적 기준의 곡해, 자만, 불의한 재판 등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배부신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된 삶을 살았으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백성들의 무지

성경: 이사야 5:13 찬양: 336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정세에 대한 무지와, 또한 예언자를 통해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통찰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불신앙의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화를 받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하겠습니까(호6:3).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에베소서 4:29).

1. “알”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공시령 거리지 마라. 2.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편이 많아진다. 3.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 된다. 흥분하지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4. “귀”를 훑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라. 5. 내가 “하고”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싶은 말을 하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라. 6.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고 칭찬은

자주해라. 7. “뻔”한 이야기보다 “편”(fun)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 만큼 재미있게 해라. 8. “허”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힘이 있다. 9. 입술에 “30초”가 가속에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10. “허”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 뱉어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야한다. 소통은 귀로 듣고 눈

으로 말하는 것이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고레스탄- 행복은 작은 감사가 모여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평생감사-

소통의 법칙

소진우 목사 2016년-2018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6년 11월

5 안양칼멜산기도원(이영준 목사)
7-9 삼동교회(고정익 목사)
14-16 경천교회(이영준 목사)
17-18 노회지교회(심봉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21-23 총회영성대회
28-30 행복에수원교회(이영준 목사)

2016년 12월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12-15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18-24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26-30 은사성교회(최태식 목사)

2017년 1월

2-4 거창성경교회(김성철 목사)
9-12 실목교회(조민희 목사)
16-18 종기교회(백현기 목사)
23-28 (인도선교)
30-2 광은기도원(김한배 목사)

2017년 2월

3 한일산기도원(이영준 목사)
6-9 감람산기도원(이복란 목사)
13-17 선교지제미나
20-22 초대총만교회(김복란 목사)
27-1 중동교회(서종표 목사)

2017년 3월

6-10 필리핀 예복교회 헌당예배 및 선교지 방문

봄철 축복 대 심방기간

2017년 4월

3-5 홍주교회(고정익 목사)
6 오산리금기도원(정재원 목사)
9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10-13 오정성교회(이주형 목사)
17-18 장기교회
18-20 안배교회(정진수 목사)
24-27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2017년 5월

7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8-12 네팔산교회(박문 목사)
15-17 주영광교회(지재문 목사)
21-24 사랑의빛교회(오성민 목사)
29-31 초대교회(윤호준 목사)

2017년 6월

4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4-8 빛과소금교회(송영만 목사)
12-16 선교지제미나
18-30 본교회 2주년축사(이대성 목사)

2017년 7월

2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3-6 관산수영관(박만석 목사)
10-12 사랑의교회(고정익 목사)
17-19 오리아교회(조진희 목사)
24-28 선교지제미나
30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2017년 8월

3 안양칼멜산기도원(정재원 목사)
7-10 임마누엘수영관(이수영 목사)
11 한일산기도원(이영준 목사)
14-17 광은기도원(김한배 목사)
21-24 감람산기도원(이복란 목사)
27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28-31 천문기도원(정재원 목사)

2017년 9월

4-8 은누리복음교회(최수현 목사)(호충제)
11-14 교단총회
18-21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25-27 비전교회(김정환 목사)

2017년 10월

추석주간
9-10 장기교회
16-18 주시랑교회(조진희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30-4 인도사역자 방문주간

2017년 11월

주안중앙교회(박용순 목사)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열린중앙교회(신동홍 목사)
필리핀 사역자 컨퍼런스

2017년 12월

4-6 살롱교회(고정익 목사)
11-14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18-21 파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6-29 송구영신을 위한 산상기도

2018년 1월

1-3 안양지역연합성회(회장 홍성장 목사)
8-10 상대교회(황인옥 목사)
14 은전교회(소치영 목사)
14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15-18 배방중앙침례교회(임병환 목사)
21-24 안양성문교회(윤노영 목사)
29-1 광은기도원(김한배 목사)

2018년 2월

5-8 감람산기도원(이복란 목사)
11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12-17 설 주간
19-21 점촌교회(김우주 목사)
26-28 실목교회(조민희 목사)

2018년 3월

1-3 안양칼멜산기도원(정재원 목사)
4-6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3월은 봄철 축복 대 심방의 달

2018년 4월

1-3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2-4 금평성경교회(조재용 목사)
9-11 산동교회(한성길 목사)
15-16 예복교회부흥회(소진우 목사)
28-30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2018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4 안양칼멜산기도원(정재원 목사)
7-10 천주기도원(김진홍 목사)
14 오산리금기도원(정재원 목사)
16-24 미추령 부흥회
27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6월 7월은 안식일

2018년 8월

3 한일산기도원(이영준 목사)
6-8 설화산기도원(노베드로 목사)
9-10 행복으로 가는교회(최석규 목사)
13-16 광은기도원(김한배 목사)
19 천보산기도원(정재원 목사)
20-23 감람산기도원(이복란 목사)
27-30 천문기도원(정재원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신촌교회의 후원으로 우간다를 위한 성경을 기증하다

대한성서공회

2018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신촌교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후원으로 우간다에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다.

신촌교회는 지난 2016년 가나에 성경을 기증한 데 이어, 금년에도 '우간다에 성경 보내기' 프로젝트를 후원하였다. 5월 한 달 동안 전 교인들이 우간다에 성경을 보내기 위해서 헌금에 참여하였고, 그 열매로 총 5가지 부족으로 17,122부의 성경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아프리카 중앙 동부에 위치한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자연경관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며, 약 34개의 소수 부족이 있다. 그러나 약 20여년간 지속된 내전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오랜 내전으로 경제발전이 늦어진 우간다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한 반군을 피하여 삶의 터전에 떠나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와 난민들은 내전으로 인한 상처를 품고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에 우간다성서공회는 교회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와 난민들을 대상으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에 성경을 기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수 부족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성경을 보급하고자 한다.

이번 기증식에서 신촌교회의 박노훈 목사는 '생명의 말씀 (딤후 4:1~2)'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박 목사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환상을 봅니다.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우간다에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가정마다 그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보내는 것만큼 힘 있는 선교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만큼 귀한 섬김은 없습니다. 오늘 빛 되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생애와 우간다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전하였다.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보내는 성경을 받게 되는 우간다는 현재 부족들 간의 내전과 여러 차례의 쿠데타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교회로 몰려오면서 우간다성서공회로 성경을 보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간다 사람들에게 오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라고 하며 신촌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이번에 신촌교회에서 기증하는 성경 17,122부는 우간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달되어 이들이 말씀으로 치유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다.

창환 박사의 인도로 진행된 가운데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대표기도를 하고, 박준서 박사(연세대학교 전 수석 부총장)가 성경 봉독(누헤미야 8:8-10)을 한 후 이철신 목사(한국영락교회 원로, 월드비전이사장)가 '복음통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총장 마크 레버튼 박사(플러신학대학원)가 격려사를 한 후, 2부 포럼은 김 예복 박사(플러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가 진행을 담당했다. 참석 강사와 발표된 강의 주제는 △하충현 박사(송실대 주임 교수,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 센터장)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북한 선교의 영향' △조요셉 박사(전 국립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연구부장,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준비위원장) '통일선교 전략' △김창환 박사(플러코리아센터 원장) '평화, 화해 그리고 통일을 위한 한국 기독교 신학의 조망' 등.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 강연과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난 후, 남북한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정현 기자

사도영성신학원 2018년도 여름학기 개강예배



신학원(학장 홍향표(요한) 목사)은 평신도나 신학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데 본 신학의 핵심이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학장 홍향표 목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말세 지 말의 영성생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영성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관심이 되고 있다면서 이날 사도영성신학원의 개강예배 및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

한편 사도영성신학원 홍향표 학장은 제10차 강의를 7월 24, 26, 31, 8월 2일까지이며, 제11차는 9월 3, 4주에 걸쳐 진행된다고 했다. 본원의 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했다.

본원문의 : 02-2625-0982, 010-7585-1955

‘한인사회, 신학교, 교회 네트워크 형성 필요’

한반도 평화와 화해 포럼/ 플러신학대학원, 송실대학교 공동주최



패서디나 소재 플러신학대학원 코리아센터(원장 김창환 박사)와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센터장 하충현 박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트래비스 오디오리움에서 지난 달 31일(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한 인교계의 광복절 68주년 기념 평화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교회와 신학교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주제 강연을 통해 일제해방 68주년을 맞

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적, 사회적, 신앙적 광복을 생각하며, 남북한의 자유 민주 평화통일을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며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 앞서 열린 경건회는 김

한서노회 월례회 및 주사랑교회 이전예배

찌는 듯이 폭염이 내리쬐는 한 여름 주의 일은 멈출 수 없어

지난 7월 24일(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 한서노회는 천안에 있는 주사랑교회(담임 장요한 목사)에서 월례회 및 이전예배를 드렸다. 이날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내리쬐는 한 여름 천안시 성정동에 자리한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열정이 한층 무르익어갔다.

한서노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20여명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서노회 서기 이승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어 노회장 김기철 목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행 2:42~47)"는 제

목의 설교와 이영종 직전총회장의 권면과 직전 부총회장인 하종우 목사의 축사에 이어 부총회장 오상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아울러 주사랑교회 장요한 목사와 성도들이 접대하는 점심식사후 2부 순서로 한서노회 교역자 월례회를 가졌다.



데이비드 김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제103회 정기총회공고

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목사 (천복교회)	서동기 목사 (서울소망교회)

주제「여호와를 기뻐하는 총회」(시 37:4)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김영국 목사 (양지중앙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북지교회)	주지랑 목사 (사천대국교회)	서재식 목사 (동성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정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오후 1시 00(12시 점심식사)
장소: 서울소망교회(증경회장 서동기 목사사무)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번길 163-1
전화: (02)3296-0340, 010-3342-7302(부부동반)

교통편: 지하철 7호선 하계역 3번 출구 5분 거리
(을지대학병원 방향)
버스편: 청량리와 상봉동에서 의정부와 상계동 방향
승차 하계역에서 하차 5분거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교단은 주 안에서 뜻을 같이할 교회와 기관, 교단가 입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총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FAX 496-0181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